

한가위 가정 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부름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 도 자

“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23:1-3 새번역)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기 도 가 족 중

- 올 한해를 보내는 동안 가족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 조상들과 부모·형제에 대해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며)
-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가족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경봉독 시편 100:1~5() 인 도 자

¹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²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³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⁴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⁵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썸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은혜의 찬양시편입니다. 1절 말씀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곁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을 의지하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과 5절은 이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301 다 같 이

1.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것이나,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

예담교회

www.yedarm.or.kr
성북구 동소문로 47-23
대표 926-0691, Fax 923-6818